

日帝強占期 京城帝國大學의 奎章閣 관리와 所藏 資料 활용*

金 泰 雄**

-
- | | |
|----------------------------------|--------------------|
| 1. 머리말 | 3. 奎章閣 운영과 所藏資料 활용 |
| 2. 朝鮮文化 研究의 방향과 奎章閣
자료의 소장 경위 | 4. 맺음말 |
-

초록: 일제는 1910년 8월 대한제국을 강점한 뒤 漸進的 同化主義를 내세워 이른바 舊慣制度調査事業을 본격화하였다. 그리고 이를 문헌상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규장각 도서정리작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추진 기관의 잦은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910년대 후반에 이르면 미흡하나마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일제가 수립한 식민지배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內鮮融和와 內鮮一體를 구실로 한민족의 말살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조사사업의 일종이라 할 규장각 도서정리작업은 일제의 식민지 문화정책과 연계하여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야 했다. 특히 3·1 운동이 일어나고 이어서 조선인들의 민족운동이 활발해짐으로써 일제는 문화의식 방면에서 적극적인 학술문화정책을 강구해야 했다. 즉 종전까지는 조선 문화를 탄압하거나 배제하는 전략을 고수했다면 이제는 조선문화를 일제의 통치 의도에 맞추어 정리하는 방침으로 전환해야 했다.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 설치는 일제의 이러한 방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치였다. 이 중 법문학부의 조선연구 방향은 조선 고유의 독자적인 문화를 해명하기보다는 동양 문화 연구를 전제로 하여 中國·滿蒙 및 日本에 부수되는 조선 문화의 地政學的 關係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조선 문화를 단지 대륙 문화와 일본 문화에 소속된 문화로 치부함을 의미하였다.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7-322-A00016)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따라서 1928년부터 1930년에 걸쳐 학무국 학무과 분실에서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으로 이관된 규장각 자료는 일제의 이러한 학술문화정책과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의 연구 방향에 부응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어디까지나 일본인 관학자들의 연구 방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 중 법문학부가 진력하였던 奎章閣叢書의 간행과 『朝鮮王朝實錄』의 영인은 주로 동양 문화 연구 또는 일본 문화 연구와 관련되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식민지 학술연구과정의 대표적인 산물이라 하겠다. 나아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 조선=동양 연구는 이러한 학술 문화 기반 위에서 관련 전공자의 연구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규장각 자료가 근대적 도서관의 형태를 갖춘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으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연구자들에게는 열람의 기회가 오히려 제한되었을뿐더러 심지어 규장각 자료가 신간 도서에 밀려 이른바 소사실에 방치되기도 하였다. 이는 조선 문화를 대륙 문화와 일본 문화에 부속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가운데 규장각 자료를 이등국민의 문화잔재로 치부했기 때문이다.

핵심어: 同化, 奎章閣, 京城帝國大學, 文化政治, 朝鮮學運動

1. 머리말

일제는 1910년 8월 대한제국을 강점한 뒤, 규장각을 폐지하고 이른바 圖書整理作業에 착수하였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舊慣制度調査事業’의 문헌적 기초를 구축하는 작업이었으며 나아가 일제가 목표했던 점진적 동화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는 방편이었다.¹⁾

이러한 작업은 추진 기관의 잦은 변경과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910년대 후반에 이르면 소기의 목표를 미흡하나마 달성할 수 있었다. 자료 이관, 서고 배치, 목록 작성 및 일부 도서의 해제 등이 그것이다.²⁾

1) 拙稿, 1993 「1910년대 前半 朝鮮總督府의 取調局·參事官室과 ‘舊慣制度調査事業’」 『奎章閣』 16.

2) 小田吾吾, 1936 「朝鮮史籍解題講義(一)」 『靑丘學叢』 23.

慎鏞廈, 1980 「奎章閣 圖書의 變遷過程에 대한 一研究」 『奎章閣』 5.

田鳳德, 1984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의 由來」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 解題, 亞細亞文化社.

그러나 이후 작업 과제 역시 만만치 않았다. 우선 1차 작업이 주로 기초 조사 작업에 지나지 않아 일제가 추구했던 同化主義 政策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 더욱이 1922년에 작업 기관이 參事官分室에서 學務局 學務課 分室로 바뀌면서 이후 작업을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또한 3·1운동 이후 조선인의 민족 운동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일제는 ‘文化政治’라는 이름 아래 학술문화정책을 강화하고자 했기 때문에 규장각 후속 작업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 그 결과 1926년 5월에 설립된 京城帝國大學의 조선문화 연구와 규장각 관리는 일제의 이러한 식민통치방침과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맥락을 염두에 두고 1926년 5월 경성제국대학 설립부터 1945년 8월 일제의 패망에 이르기까지 규장각 자료를 중심으로 경성제국대학이 수행한 조선문화 연구의 방향과 함께 규장각 관리의 실상, 소장 자료의 활용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일제의 식민지 문화정책이 舊慣制度調査의 차원을 넘어 경성제국대학의 학문 연구 방향과 밀접하게 연계되면서 규장각 자료를 둘러싼 이러한 제반 문제에 끼친 영향을 해명하게 될 것이다.

2. 朝鮮文化 研究의 방향과 奎章閣 자료의 소장 경위

1919년 3·1운동은 조선총독부의 통치정책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이른바 문화정치 시의 시작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3·1운동에서만 기인되지 않았다. 일제 자신이 1910년대 후반 土地調査事業의 완료를 비롯하여 식민지 지배의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던 터였기 때문이다. 학술문화정책의 경우, 舊慣制度調査事業과 朝鮮古蹟調査 등 각종 조사사업에서 잘 나타나고 있듯이 조선인의 관습과 제도 그리고 조선고적 현황 등을 파악하는 기초 조사 사업 단계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조선인들의 내면세계에서 형성되고 있는 民族文化意識을 植民地 文化意識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³⁾ 특히 1919년 3·1운동 이전부터 몇몇 일본인 식자들을 중심으로 동양연

徐榮姬, 1994 「통감부 시기 일제의 권력장악과 규장각 자료의 정리」 『奎章閣』 17.

拙稿, 1995 「日帝 強占 初期의 奎章閣 圖書 整理 事業」 『奎章閣』 18.

3) 이와 관련하여 朴光賢, 2002 「京城帝國大學と『朝鮮學』」, 名古屋大學大學院人間情報學研究科 博士學位論文, 54-55면 참조.

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성에도 대학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예컨대 日鮮同祖論의 대표 학자라 할 가네자와(金澤庄三郎)는 1910년대 전반 조선의 중등교육 현실을 낙관하면서 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한편 당시 동양문화 연구를 진작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조선에 설립될 대학에서 이를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⁴⁾

이런 가운데 3·1운동과 뒤이어 나온 민립대학 설립 운동은 일제의 이러한 방향 전환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⁵⁾ 특히 일본 본국 내에서도 동양사학자 시라토리(白鳥庫吉)를 비롯하여 훗날 경성제국대학 초대 총장을 역임할 핫토리(服部宇之吉) 등은 식민지 문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인과 조선인의 융화’를 내세웠다.⁶⁾

우선 일제는 1922년 2월 제2차 朝鮮教育令을 제정하여 식민지 교육정책을 조정하는 가운데 식민지 조선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⁷⁾ 이는 ‘內鮮人 共學主義’에 입각한 식민지 고등교육의 시작과 동시에⁸⁾ 조선인을 점차 ‘완전한 日本 國民’으로 되게 하는 동화정책의 강화를 의미하였다.⁹⁾ 즉 일제는 조선인 모두를 우민화하고 통제하기보다는 조선인 일부 상층에게 근대적 고등 지식의 습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선인들을 분열시킬뿐더러 이들 조선인을 내세워 자발적인 동화의 방도를 마련코자 하였다. 그리하여 1924년에 경성제국대학 예과를 설치하였으며 이어서 1926년에는 경성제국대학 학부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¹⁰⁾ 즉 법문학부에 법률, 정치, 철학, 사학, 문학 등 5개과를 두었고, 의학부에 전공이 세분되긴 했으며 의학과 하나를 두었다.

이러한 학부의 설치를 앞두고 열린 일본 衆議院 제3분과위원회에서 유아사(湯淺倉平) 정무총감이 “경성제대는 이런 분야(조선역사, 조선문화, 조선약물학 등)

- 4) 金澤庄三郎, 1915 「東洋の研究と京城大學」 『朝鮮及滿洲』 100(朝鮮雜誌社), 1915. 11.
- 5) 정선이, 2002 『경성제국대학 연구』, 문음사, 23-28면; 宋漢鏞, 2001 「日本の 植民地大學教育政策 比較 研究 — 京城帝國大學과 滿洲建國大學을 中心으로」 『中國史研究』 16.
- 6) 京城帝國大學 同窓會, 1972 『京城帝國大學同窓會會誌』, 4면. 이와 관련하여 송한용, 앞 논문, 261면 참조.
- 7) 勅令 제19호 1922년 2월 6일 「朝鮮教育令」.
- 8) 平井三男, 1928 「朝鮮學制の大要」 『朝鮮』 123.
- 9) 朝鮮總督府, 1919 『朝鮮學制改正案要領』.
- 10) 경성제국대학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서는 李忠雨, 1980 『京城帝國大學』, 多樂園, 104-112면; 정선이, 앞 책, 67-127면 참조.

에 관해 각별히 연구해서 동양문화에 공헌할 것으로 생각한다. 금후 조선문화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일본문화를 돕는 소지가 마련될 것이 분명하다.”는 답변에서 일제의 경성제국대학 설립 의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¹¹⁾ 또 사이토오(齋藤實) 총독은 始業式 告辭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대학교육은 創始의 업에 속할뿐더러 동양문화, 조선특수의 질병약물 등의 연구에 중대한 사명을 갖고 있다.¹²⁾

경성제국대학의 사명이 유아사 정무총감의 언급대로 동양문화 연구와 조선특수의 질병약물 연구에 있음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¹³⁾ 그리고 초대총장이었던 핫토리 시업식 훈사에 이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내지의 제국대학은 각각 다소의 특장을 가지고 있다. 본 대학은 조선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져야 할 특색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이 예로부터 한편으로는 支那, 한편으로는 内地에 대해서 갖는 밀접한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제 다른 사항은 잠시 미루고 문화의 관계를 가지고 말하여도 내지의 문화에 관한 문제로 그 해결에는 조선연구가 빛을 부여할 일이 적지 않고 조선문화에 관한 문제는 支那研究에 의해 천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동시에 조선문화 연구가 지나의 연구에 광명을 주는 경우가 있다. 내지의 문화연구가 조선연구에 빛을 주는 것도 물론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지나와의 관계 또 한편으로는 내지와의 관계로 널리 여러 방면에 걸쳐 조선연구를 행하고 동양문화 연구의 권위가 된다고 하는 것이 본 대학의 사명이라고 믿고 있다. 능히 이 사명을 수행하려면 日本精神을 원동력으로 하여 일신의 학술을 이기로 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¹⁴⁾

경성제국대학이 조선 지역에 所在하는 大學으로 朝鮮文化를 연구함으로써 동양문화 연구에 기여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대학이 일본 여타 제국대학과 달리 조선 문화가 중국 문화와 일본 문화의 사이에 존재한다는 地政學的 文

11) 李忠雨, 嶺 책, 106면 재인용.

12) 朝鮮教育會, 1926 『文教の朝鮮』 10, 1926년 6월호, ‘京城帝國大學始業式に於ける告辭’.

13) 경성제국대학의 한약연구에 앞서 1910년대에 이미 조선총독부가 약용식물에 관한 현장 조사 및 문헌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愼蒼健, 2007 「경성제국대학에 있어서 한약연구의 성립」 『사회와역사』 76 참조.

14) 朝鮮教育會, 嶺 책, ‘京城帝國大學始業式に於ける訓辭’.

化關係를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중심 기관임을 특색으로 강조하고 있다.¹⁵⁾ 따라서 여기서 과생될 朝鮮研究는 근대적인 학문연구 방법론에 입각하되 스스로를 타자화한 식민지 지방학의 일개 분과 연구에 지나지 않음과 동시에 조선인·조선문화의 주체적 개별성보다는 조선지역의 타율적 특수성에 초점을 두겠다는 셈이다. 특히 이런 연구 역시 ‘日本精神을 원동력으로’ 해야 했다. 따라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는 일제의 이런 식민 통치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여 학술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그 범위는 조선에 국한하지 않고 중국, 만주, 몽고 등을 포괄하였으며 그 분야 역시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정치, 법률, 경제 및 역사, 언어, 문학, 사상, 신앙, 풍속 제방면에 걸쳤다.

한편, 교수진의 구성과 강좌 개설도 여기에 준하여 이루어졌다. 우선 교수진의 경우, 동양문화와 조선문화의 전공자가 주로 포진된 반면에 서양문화 전공자는 대거 배제하였다. 그리하여 高橋亨, 小倉進平, 佐藤清, 松月秀雄, 速水滉, 上野直昭, 小田省吾, 花村美樹 그리고 今西龍 등이 학부 개설 이전에 임용되었다.¹⁶⁾ 또 학부 개설 이후 강사로서 강좌를 맡았지만 조선인으로 鄭萬朝, 魚允迪 등이 조선학 일부 강좌를 담당하였다.¹⁷⁾ 즉 이들의 대부분은 강좌를 맡기 전에 조선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 경험이 있던 조선문화 전공 학자였다. 따라서 학부 개설 이후 일본 본국에서 활동하였던 일본인 교수들이 부임하지만 법문학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갔던 학자들은 학부 개설 이전에 임용되었던 전자의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강좌 역시 이에 준해 朝鮮研究와 東洋研究 위주로 편성되었다. 이는 훗날 이 분야의 전공자를 양성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법문학부 사학과 제3회 졸업생 10명 중 조선사 전공자는 4명, 중국사 전공자는 3명, 일본사 전공자는 3명이었다. 이 중 6명이 조선사와 중국사를 전공하였다. 田川孝三은 「毛文龍과 朝鮮의 關係에 관하여」, 梁柱華는 「高麗初期에 있어서 高麗契丹關係」, 江見一二는 「三國末 新羅의 統一運動에 관하여」, 伊藤勝嘉는 「新羅建國」, 三好嚴一郎은 「元朝의 諸民族通御策에 관하여 특히 漢人統制에 留意하여」, 嚴武鉉은 「東洋史上에서 匈奴民族의 興亡盛衰에 관하여」를 졸업논문으로 발표하였다.¹⁸⁾ 이 중 조선사

15) 이에 관해서는 朴光賢, 2002 앞 논문, 48-50면.

16) 京城帝國大學, 1927 『京城帝國大學一覽(1926~1927)』, 29-32면. 이와 관련하여 정근식, 2006 「경성제국대학 교수와 연구·교육체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워크숍 ‘식민권력과 근대지식: 경성제국대학연구’ 발표문 참조.

17) 京城帝國大學, 뒷 책, 32면; 朝鮮教育會, 1931 『文教の朝鮮』 69, 1931년 5월호.

나 중국사 그 자체보다는 조선대외관계사 또는 중국대외관계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학부 개설 이전에 조선에서 학자나 관료로서 활동하였던 인물들의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들은 1910년대 구관제도조사와 연계되어 있거나 조선총독부 학무국이나 조선중등교육에 종사함으로써 규장각 자료 정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¹⁹⁾ 이 중 다카하시(高橋)와 정만조는 ‘규장각 도서정리사업’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²⁰⁾ 또 오다(小田)는 ‘조선제국대학창설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다카하시는 동 위원회의 간사로 참여하여 경성제국대학 설립과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한 이마니시(今西)의 후임으로 부임한 후지다(藤田亮策)와 오다의 후임인 쓰에마쓰(末松保和) 역시 조선총독부 編修官, 修史官으로 조선 조사연구 경력을 쌓은 뒤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부임하였다. 이는 경성제국대학의 특색이 조선문화 연구에 있음을 재삼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연구가 이전의 구관제도조사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들이 규장각 자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은 당연하였다.

반면에 조선인 지식인들은 경성제국대학의 조선문화 연구에 동조하기보다는 의혹 내지는 우려의 시선으로 보았다. 당시 『朝鮮日報』는 1926년 4월 16일 학부 개설에 즈음한 총독부 발표를 이렇게 풍자하고 있다.

경성제국대학으로 하여금 조선문화를 연구시킬 필요는 일본문화를 천명케 함에 긴절한 까닭이라고. 원래가 남 위해 사는 조선이니까.²¹⁾

당시 조선인들은 경성제국대학의 조선문화 연구가 조선 고유의 역사와 문화 그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조선을 중국이나 일본에 부속된 존재로 인식한 전제위에서 동양문화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비타협적 민족주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이미 경성제국대학 설립 직전인 1925년 9월에 朝鮮事情調査研究會를 조직하여 “복잡한 실제운동을 떠나서 조선의 사회사정을 과학적으로 조사연구하여 널리 사회에 소개하며, 때로는 필요한 자료를 그 수

18) 朝鮮教育會, 1926 『文教の朝鮮』 67, 1926년 3월호.

19) 박광현, 앞 논문, 58-60면.

20) 줄고, 1993 앞 논문, 109-111면.

21) 『朝鮮日報』 1926년 4월 16일.

요자에게 공급”하고자 하였다.²²⁾ 이어서 이들은 『朝鮮日報』 10월 31일자 사설을 통해 조선 연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파하였다.

조선에 있는 조선인이면서 조선의 사정을 잘 모르는 것이 기괴한 사실인 것 …… 소장 이상의 식자에게는 중국의 지리 역사 인물 등에 관하여 조선의 그것 이상으로 이해와 취미를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및 유년들에게는 일본의 지리 역사 풍토 등이 조선의 그것 이상으로 주입되려는 형세이다. 그리고 급진적인 부류의 인생들은 비조선적인 ‘코스코폴리탄’이 되고 말려 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현대인의 세계화는 필요한 일이지만 자기의 지반인 조선 향토의 특수한 사정을 閉却하고 문자 그대로 세계인화하는 것은 결국 세계적 방랑아될 운명 이외에 광명이 없다 할 것이다.²³⁾

이러한 지적은 구세대의 중국 중심 및 신세대의 일본 중심의 문화의식과 함께 사회주의의 좌편향을 비판하는 한편, 이후 전개될 일제의 조선연구 방향에 반론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즉 이러한 움직임이 1930년대 중반 安在鴻, 鄭寅普 등의 朝鮮學運動으로 표출되었으며 결국 조선 민족의 고유성과 주체성을 학문적, 사상적 방법으로 재정립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경성제국대학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일제 관학의 조선 연구=동양 연구에 대응하고자 한 노력이었다고 하겠다.²⁴⁾

그러나 당시의 지식 권력이 조선총독부 및 경성제국대학의 일본인 교수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조선 연구의 방향과 함께 연구 자료의 관리도 이들의 손안에 놓여 있었다. 또한 일본인 관학자들의 학술 활동이 일제의 동화주의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가운데 규장각 자료의 정리와 활용도 이 방향에 서야 했다. 드디어 1926년 직후 어느 시점에서 경성제국대학이 학술 연구를 이유로 조선총독부 학무국 학무과 분실에 보관되어 있는 규장각 자료의 이관을 요청하였다. 이에 당시 학무국 학무과도 규장각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分室의 구내가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 열람시키는 것이 곤란하였기 때문에 朝鮮史編修會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례

22) 『朝鮮日報』 1925년 11월 30일. 여기에는 백남훈, 안재홍, 백남운, 백관수, 이순탁 등 좌우를 막론하여 조선 지식인들이 참여하였다. 이 단체는 이후 매달 조사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이지원, 2007 『한국 근대 문화사상사 연구』, 혜안, 270-274면 참조.

23) 『朝鮮日報』 1925년 10월 31일, 사설, 「朝鮮人과 朝鮮事情」.

24) 이지원, 앞 책, 343-349면.

에 따라 관외로 대출해 주었다.²⁵⁾

이어서 규장각 자료가 경성부 소격동 소재의 종친부 규장각도서 서고에서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서고로 이관되기 시작하였다.²⁶⁾ 여기에는 『朝鮮王朝實錄』 정족산본 및 태백산본 각각 1질도 포함되었다. 즉 이 자료들은 1928년부터 10월 29일부터 1930년 11월 29일까지 3차에 걸쳐 이관되었다.²⁷⁾ 아울러 학무국과 경성제국부속 도서관 사이에서는 순차적으로 圖書引繼目錄을 작성하였다.²⁸⁾ 제1차 이관(1928. 10. 29)은 조선본 도서 2,074부, 9,551책이었다. 제2차 이관(1930. 5. 28)은 중국본 도서 1,086부, 15,970책이었다. 제3차 이관(1930. 10. 29)은 『備邊司謄錄』을 비롯한 기록류와 미정리도서 13,471종, 136,638책이었다. 총 151,510책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1930년 6월 콘크리트 건물인 제2서고가 완성되었다. 당시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공간 배치는 <그림 1>과 같다.

규장각 자료는 이처럼 귀중도서 열람석(M)이 붙어있는 2층 서고(G)에 자리잡았으며,²⁹⁾ 법문학부 연구실(K)이 같은 건물에 배치되었다. 이는 법문학부가 규장각 자료 관리와 조선·동양 연구의 중심으로서 구실할 것임을 예고한다 하겠다. 아울러 부속도서관에는 1927년 당시에는 관장 1명(小倉進平), 사서관 1명, 서기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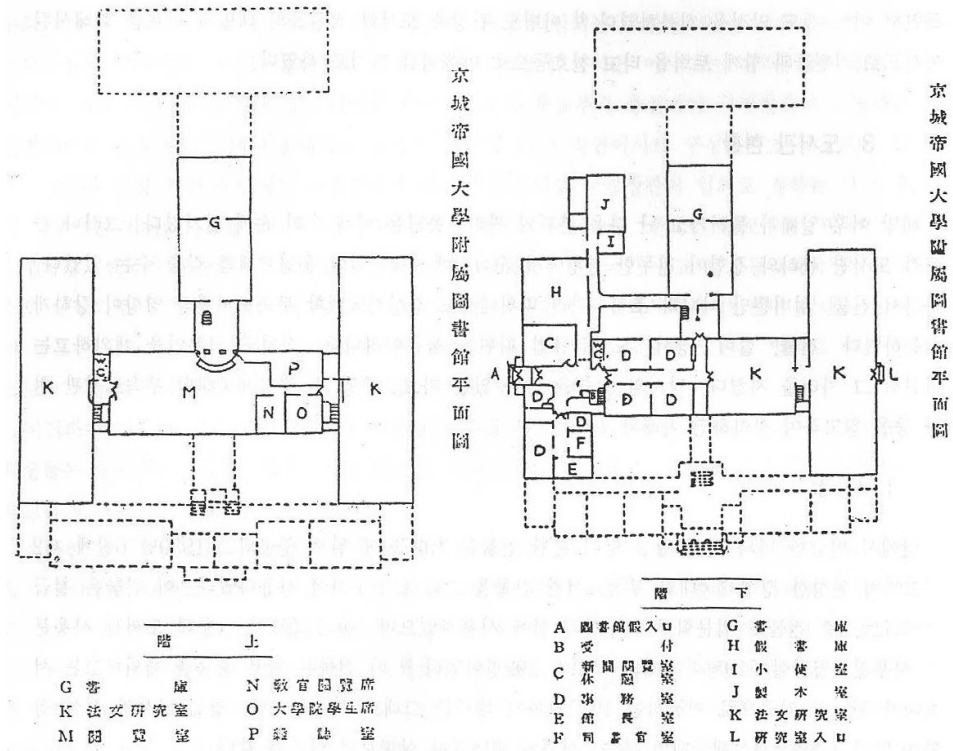
25) 당시 학무국 학무과 분실에서는 관내 대출 및 열람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일반인들이나 학자들의 관외 대출은 불가능하였다. 다만 朝鮮史編修會의 경우, 취급 사료의 대부분이 학무과 분실 규장각 자료에서 특례에 따라 관외 대출해 주고 반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관 과정에서 조선총독부 학무국과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사이에서 이견이 표출되었다. 즉 학무국은 1930년 8월 경성제국대학이 조선 및 중국의 고도서 보관 전환을 담고 있는 照會를 보내자 이에 不燃 素材의 서고가 마련 되는대로 경성제국대학에서 조선총독부에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서 규장각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였다. 당시 학무국은 규장각 자료를 경성제국대학에 보관 전환하기보다는 장기로 대출한 뒤 새로운 서고를 마련하면 반환받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中樞院, 1920년대 후반 『朝鮮舊慣 및 制度調査沿革의 調査 第2冊』, 圖書의 整理 참조.

26) 규장각 자료를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주거 지역과의 근접과 방제시설의 미비를 들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에 조선총독부도 이런 우려에 공감하면서 훗날 총독부 서고의 신축까지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 임시로 보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東亞日報』 1930년 9월 24일).

27) 小田省吾, 앞 논문.

28) 京城帝國大學 附屬圖書館 편, 1928~1930 『保管轉換引繼圖書目錄』 1책~3책.

29)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초창기에는 귀중도서가 규장각 자료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1996 『서울大學校 圖書館五十年史 1946~1996』, 13면 참조.



〈그림 1〉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평면도(1940)

사서 2명이 근무했던 데 반해 1931년 당시에는 관장 1명(大谷勝眞), 사서관 1명, 서기 1명, 사서 4명, 촉탁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³⁰⁾ 규장각 자료가 이관되면서 시황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들 중 일부가 규장각 자료를 관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규장각 자료는 이처럼 학무국 학무과 분실에서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으로 이관되었다. 이는 식민지 조선 연구와 동양 연구의 발판이 마련됨을 의미하였다.

30) 京城帝國大學, 1927 『京城帝國大學一覽(1926~1927)』, 28면; 1931 『京城帝國大學一覽(1930~1931)』, 139-140면.

3. 奎章閣 운영과 所藏資料 활용

규장각 자료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 이관됨으로써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규장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이는 東京帝國大學 史料編纂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가 조선문화 연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정리와 편찬사업을 전담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는 학무과 분실로부터 이관받은 규장각 자료의 목록을 정리하는 한편 조선문화 연구를 위한 토대로서 자료 수집과 자료 복간 및 영인 작업에 관심을 기울였다.

우선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이 朝鮮總督府 學務局으로부터 인계한 규장각 도서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여기에는 ‘朝鮮本’ 뿐 아니라 ‘支那本’과 ‘特別本’까지 망라하여 수록하였다.³¹⁾ 총 190,684종에 이르렀다. 이 수량은 1930년 이관이 완료될 시점의 수량에 비해 5,000종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³²⁾

다음 古文書는 물론 많은 古書들이 수집되었다. 고서의 경우, 4,000종 이상으로 파악된다.³³⁾ 이 중 『三國史記』 正德本(安鼎福 手澤本)을 비롯한 많은 고서는 조선사 강좌를 주관한 이마니시가 입수하였다.³⁴⁾ 심지어는 조선사편수회에서 빌려온 『高麗史』(安鼎福 手澤本)가 원 소장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에 입고되기도 하였다.³⁵⁾

한편, 무엇보다도 古書 復刻 作業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조선문화 연구의 기초자료와 貴重庫本 9종 38종을 복간하였으며, 규장각 총서 부속 도서관 소장의 구 규장각본 중 역사, 언어, 문학 등에 관한 귀중 자료를 선정한 뒤, ‘奎章閣叢書’로 1935년부터 1944년까지 10종 9책을 간행하였다. 또한 『朝鮮王朝實錄』

31) 京城帝國大學 附屬圖書館, 1930년대 『奎章閣朝鮮本圖書目錄』(奎 26782).

32) 『奎章閣朝鮮本圖書目錄』(奎 26782)의 제10책 마지막 청구번호가 19684였다.

33)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고도서 중에서 분류기호 중 ‘古’자가 앞머리에 붙어 있고 이어서 4자리로 구성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관해서는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 1979 『서울大學校 圖書館 舊藏書分類表』 참조.

34) 이충우, 앞 책, 110-111면 참조.

35) 박종기, 2006 『안정복, 고려사를 공부하다』, 고즈인, 41-44면.

188권 888책을 1929년 11월에서 1933년 3월까지 영인 간행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古典飜刻委員會는 1935년 3월부터 『瀋陽狀啓』를 ‘奎章閣叢書第一’로 지정하고 편찬·간행하였다.³⁶⁾ 그것은 명말·청초 조선의 외교관계를 고찰하는 데 매우 주목받는 서책임에도 불구하고 열람의 불편과 초서의 난독으로 이용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고전번각위원회는 매년 1권씩 활자본으로 편찬·간행하기 시작하였으니 『增正交隣志』(1940), 『攷事撮要』(1941) 등을 간행하였으며 1944년에는 『老乞大諺解』를 ‘奎章閣叢書第九’로 편찬·간행하였다. 이 때 실무를 담당한 기관은 경성제국대학 朝鮮史學研究室로서 간행할 때마다 책 말미에 해제를 붙였다. 『朴通事諺解』와 『老乞大諺解』의 경우, 해제자가 각각 후지다(藤田亮策)와 쓰에마츠(末松保和)였다. <표 1>은 1935년부터 1944년까지 경성제국대학이 간행한 규장각총서 현황이다.

일본인 관학자들이 관심을 두었던 자료가 주로 대외관계 연구 및 언어 연구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 설립 취지에 부응하여 동양 연구를 위한 고서 복간작업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다음 일제는 『朝鮮王朝實錄』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關東大地震에 따른 보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왕조실록』 영인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역사, 문화 여러 방면연구의 근본자료임은 물론이고 일본, 대륙 특히 인접하는 만주 민족의 史實을 보완”하는 작업에 귀결되었다.³⁷⁾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규장각총서 간행의 취지와 같이 일본 역사의 연장 또는 만주사의 연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경성제국대학은 태백산사고본을 저본으로 해서 1929년 11월에 시작하여 1933년 3월에 영인 작업을 마쳤다. 책수는 800여 책이며 항목수는

36) 『瀋陽狀啓』는 교토제국대학 교수 內藤湖南이 ‘滿蒙叢書第九卷’으로 『瀋陽日記』의 일부를 수록하여 해제한 글에서 사료로서의 가치가 언급되었다. 이는 조선에 대한 대륙의 압도적 영향을 강조하는 滿鮮不可分論에서 연유하였다. 반면에 경성제국대학 교수 今西龍은 『瀋陽狀啓』를 ‘朝鮮學叢書’ 시리즈에 편입시켜 간행하고자 하였다. 이는 日鮮同祖論에 입각하여 조선사를 국사(일본사) 안에 편제시키려는 의도에서 연유하였다. 그러나 今西龍이 급서하는 바람에 시리즈 명칭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서는 『滿蒙叢書 第九卷 瀋陽日記』(滿蒙叢書刊行會, 東京, 1922)와 『瀋陽狀啓』(京城帝國大學 法文學部, 京城, 1935) 해제 각각 참고. 만몽총서와 규장각총서의 관계는 이 시기 滿鮮史觀과 日鮮同祖論의 관계와 관련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37) 田川孝三, 1972 「京城帝大法文學部と朝鮮文化」 『京城帝國大學同窓會誌』, 141면 참조.

〈표 1〉 1935~1944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 奎章閣叢書 간행 현황

간행연도/ 총서번호	책명/ 해제자	간행연도/ 총서번호	책명/ 해제자
1935/ 第一	瀋陽狀啓/ 藤田亮策	1940/ 第六	增正交隣志/ 藤田亮策
1936/ 第二	大東與地圖 大東與地圖索引 (별책)	1941/ 第七	攷事撮要/ 末松保和
1937/ 第三	把翠軒遺稿 訥齋先生集 批選龜先生集/ 高橋亨	1942/ 第八	朴通事諺解/ 末松保和
1938/ 第四	龍飛御天歌 上/ 藤田亮策	1944/ 第九	老乞大諺解/ 末松保和
1939/ 第五	龍飛御天歌 下/ 藤田亮策		

출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구관 목록; 田川孝三, 1972 「京城帝大法文學部と朝鮮文化」 『京城帝國大學同窓會誌』, 139-141면 참조.

12만 여건이었다. 그리고 간행 경비는 12만원으로 총 20부를 간행하였다.³⁸⁾ 1부당 6,000원인 셈이다. 그리고 배포 기관은 원래 경성제국대학을 비롯하여 조선총독부 도서관, 도쿄제국대학 등 관립기관에 한정되었다. 이에 구 대한제국에서 관직을 역임했던 李載亮이 조선 사립학교에서 귀중한 실록을 갖지 못하는 현실을 유감으로 여긴 나머지 1930년 6월 연희전문학교에 6,000원을 기부하여 『조선왕조실록』 영인본을 매입하도록 하였으며, 1935년 3월 보성전문학교에 『조선왕조실록』 영인본을 기증하였다.³⁹⁾

이어서 일제는 『조선왕조실록』의 정리에 착수하였다. 우선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 쓰에마츠(末松保和)가 실록 조사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941년 『朝鮮歷代實錄一覽』을 편찬하였다.⁴⁰⁾ 조선왕조실록의 편람이라 하겠다. 여기에는 25대 29종의 실록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光海君日記』는 정족산본을 이용하였다.

38) 『朝鮮日報』 1930년 6월 9일; 田川孝三은 영인 부수가 20부가 아니라 30부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田川孝三, 위 글, 142면 참조.

39) 『每日申報』 1930년 6월 9일; 1935년 3월 30일.

40) 末松保和, 1941 『朝鮮歷代實錄一覽』,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

수록 내용은 실록명, 영인본 책차, 권차, 연차, 월차, 월별로 朔의 干支, 당해월 최초 기사의 위치를 장차와 상하로 표기, 明의 연호, 연차, 일본의 연호, 연차, 일본 기원의 순으로 기재하였다. 부록에는 ‘朝鮮歷代實錄冊卷一覽表’와 ‘干支表’가 첨부되었다. 이후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에서는 연이어 실록 조사 연구 자료를 간행할 예정이었다

반면에 일제의 이러한 방침 설정과 작업 추진은 통치적 목적을 전제로 하고 있어 규장각 자료의 이용자는 조선문화 연구를 독점했던 일본인 관학자에 국한되었다. 이는 제한적이거나 일부 조선인들에게 열람되었던 자료들이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완전한 보전’을 이유로 아예 비공개됨을 예고하였다. 이에 조선인들은 자료의 이러한 제한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당시 『朝鮮日報』를 비롯한 언론 매체에서는 오대산 사고본처럼 규장각 자료들이 화재로 소실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한편 열람의 엄격한 제한으로 말미암아 모처럼 일기 시작한 조선학의 부흥과 조선학도의 열망에 크게 지장이 될 것이라 우려하였다.⁴¹⁾ 학술 독점의 강화로 비친 썬이다. 조선 왕실 역시 이러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관을 반대할 정도였다. 당시 조선인들은 규장각을 ‘朝鮮學의 寶庫’, ‘東洋學術의 材料’라고 표현할 정도로 규장각 자료를 소중하게 여기는 가운데 규장각 자료의 공개가 조선문화 연구에 자극과 편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성제국대학 교수 오다는 이들 규장각 자료가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 엄중하게 보관되어 있음을 늘상 강조하였다.⁴²⁾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규장각 자료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으로 이관되면서 ‘특별한 소개’를 통해 민간 학자들이 겨우 얻어 볼 수 있었던 기회마저 봉쇄되었던 것이다.⁴³⁾ 이전에는 당시 학무국의 허가를 받으면 일반인도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다.

이에 일제는 조선인 학계의 불만과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古書展示會를 자주 개최하였다. 이 중에서 가장 큰 행사로 추정되는 전시회가 1931년 5월 2일에 열렸다. 이 행사는 경성제국대학 창설 7주년을 기념하여 마련된 전시회로 오후 1시부터 4시에 걸쳐 규장각 고서들이 일반에게 공개하였다. 여기서는 역사서를 중심으

41) 『中外日報』 1930년 9월 26일; 『朝鮮日報』 1930년 9월 24일; 1930년 11월 30일.

42) 小田省吾, 앞 글, 154면.

43) 『朝鮮日報』 1931년 5월 3일.

로 朝鮮本과 中國本 2종으로 나누어 전시하였다.⁴⁴⁾ 전시 자료의 대강을 보면, 조선본으로는 『三國史記』, 『三國史節要』, 『高麗史』, 『高麗史節要』, 『太祖實錄』, 『瀋陽日記』, 『明成皇后國葬都監儀軌』, 『大邱府戶籍』, 『慶尙道地理志』, 『經國大典』, 『日本文部省視察記』, 『陽村集』, 『法華經』 등등의 역사서, 의궤, 호적, 지리지, 법전류, 근대시찰기류, 불경 133종이었다. 또한 중국본으로는 『周易兼義』, 『後漢書』, 『南史』 등등의 21종이 전시되었다. 이어서 같은 해 10월 3일과 4일에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朝鮮時代 活字本 展示會를 개최하였다.⁴⁵⁾ 또 1932년에는 古地圖展示會를 개최하였으며 1936년에는 경성제국대학 개학 10주년 기념 전시회를 개최하였다.⁴⁶⁾

그러나 일제가 규장각 자료를 정리하고 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이 조선인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못하였다. 오히려 자료 보관의 문제로 말미암아 따가운 비판을 받아야 했다. 당시 『朝鮮日報』는 1939년 1월 21일 조간에서 ‘집도업는 규장각본’이라는 제목으로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규장각 자료보존 실태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이조 오백년 왕가의 비장도서로서 궁중 깊이 간직해 두어 두문불출로 내려오던 규장각의 귀중도서 13만권이 총독부의 손을 거쳐 경성제대 도서관에 자리를 옮겨온 것이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소화 5년의 일이다. 그러던 것이 이사한 지 10년도 채 못되어 이처럼 세상에 들도 없는 귀중한 도서가 근근 4만원의 서고 증축비용이 없어 그 동안 해마다 늘어난 대사롭지도 않은 신간서적 나무랭이에게 밀리고 밀려 지금에 와서는 서고의 제자리는 남에게 빼앗기고 방화장치도 아무 것도 없는 小使室 모퉁이 누추한 단칸방에 삼스던 싸툼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고 있다.⁴⁷⁾

당시 조선인들은 경성제국대학의 규장각 자료 관리를 우려하면서도 최고학부

44) 京城帝國大學 附屬圖書館, 1931 『開學7周年記念 古圖書展觀目錄』; 『京城日報』 1931년 10월 3일.

45) 京城帝國大學 附屬圖書館, 1931 『朝鮮活字印刷資料展示準備調查資料』(奎 26793); 『朝鮮日報』 1931년 10월 2일.

46) 京城帝國大學 附屬圖書館, 1932 『朝鮮古地圖書展觀目錄』; 1936 『開學十周年記念 古圖書展觀目錄』.

47) 『朝鮮日報』 1939년 1월 21일.

의 근대식 도서관에 보관하며 이 방면 학자들에게 널리 개방할 것이라 기대하였지만, 식민지 현실에서 규장각 자료는 공간 협소를 이유로 신간 서적에 밀려 이른바 小使室에 보관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물론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측에서는 서고의 부족으로 임시로 보관했을 뿐 소홀하게 취급하지 않을 것이며 보관 방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석명서를 냈다.⁴⁸⁾

그러나 이러한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는 일제가 신간 도서를 규장각 자료보다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나아가 이는 식민지 문화 정책의 허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처사였다. 즉 규장각 자료의 정리 및 보존이 식민 지배의 특정 목적을 거두려는 舊慣制度調査事業과 東洋文化 연구에서 비롯된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제가 한국 민족 문화의 독자적 유산이자 세계 문화의 보편적 유산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이등 국민의 주변적인 문화잔재로 간주하여 헌신짝처럼 치부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식민지 문화 정책의 궁극적 귀결이었다. 따라서 한국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제일 먼저 수행해야 할 학술문화사업은 당연히 규장각의 올바른 정립을 통해 민족문화를 재건하는 일이었다.

그러면 1945년 8월 해방은 우리에게 민족문화를 재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까. 오히려 그것은 학술문화사업의 험난한 앞길을 예고하였다. 『매일신보』는 1945년 10월 14일자 기사에서 규장각 자료의 수난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京城大法律文學部自治委員會 委員長 李明善은 同部 奎章閣圖書館의 圖書不祥事件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조선의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유일한 국보인 京城大 법문학부 규장각도서관은 조선에 완전한 독립국가건설을 위하여 진주한 미군을 맞이하여 동 군의 관리하에 들어 갔었다. 그런데 일전 도적을 당하는 것을 자치위원이 발견하고 미군당국에 제삼 경고한 일이 있다. 그후 모서점에서 동관 도서 5권을 발견하여 다행히 매수하였다. 이러한 불상사를 보고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미군당국에 충고하여 양해하에 동관 출입허가를 받았다. 도서관에 들어가보니 단군 이래 대대로 전하여 오던 유일한 국보문화도서와 연구자료로 보관해 두었던 신문은 휴지와 함께 화장을 당한 것도 있었고 몰상식하고 악덕한 자들의 도적으로 인하여 유실된 것도 다수있는 모양인데 상세한 수량은 지금 조사 중이다. 그리고 도서는 부정취급으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되어 정리에 수개월을 요할 형편이다. 이 사실을 안 요즈음에는 철저한 감시를 하고 있으니 안심이다.

이러한 불상사건은 물론 세계의 제일 문화인이며 신사적인 미군의 의식행동이라

48) 『朝鮮日報』 1939년 1월 24일.

고는 볼 수 없으나 교사접수 최초에 도서만은 너희들 이상 잘 보관해 줄 터이니 조금도 염려 말아라, 라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솔한 관찰과 불철저한 감시로 말미암아 이러한 사고를 내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더욱 미군들 밑에서 일 보고 있는 조선인은 이 도서가 어떻게 귀중하고 유일한 도서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미군들에게 잘 인식조차 시키지 않고 한 개의 휴지와 같이 태워 버렸으니 분개할 일이다. 그리고 사회제현에게 바라는 바는 유실된 도서를 1권이라도 회수하여 대대로 우리의 역사적 연구의 초석으로 보존코자 하오니 본부 날인한 도서를 발견하시면 곧 통지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⁴⁹⁾

8·15 해방에 이은 미소 양군의 한반도 분할 점령과 민족문화재건 노력의 부진은 규장각 자료의 잿빛 미래를 전망하는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절실함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민족문화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학계가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관심을 끌어내는 한편, 서울대학교 규장각 스스로 기록문화유산을 온전하게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했다.

4. 맺음말

이상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의 규장각 관리와 소장 자료의 활용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이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일제는 1910년 8월 대한제국을 강점한 뒤 漸進的 同化主義를 내세워 이른바 舊慣制度調査事業을 본격화하였다. 그리고 이를 문헌상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규장각 도서정리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후 추진 기관의 잦은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910년대 후반에 이르면 미흡하나마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일제가 수립한 식민지배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內鮮融和와 內鮮一體를 구실로 한민족의 말살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조사사업의 일종이라 할 규장각 도서정리작업은 일제의 식민지 문화정책과 연계하여 새로운 단계로 진입해야 했다. 특히 3·1 운동이 일어나고 이어서 조선인들의 민족운동이 활발해짐으로써 일제는 문화의식 방면에서 적극적인 학술문화정책을 강구해야 했다. 즉 종전까지

49) 『每日申報』 1945년 10월 14일.

는 조선 문화를 탄압하거나 배제하는 전략을 고수했다면 이제는 조선문화를 그들의 통치의도에 맞게 정리하는 방침으로 전환해야 했다.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 설치는 일제의 이러한 방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치였다. 이 중 법문학부의 조선 연구 방향은 자료정리식 혹은 문헌고증식 연구방법론을 근대적 학문방법론인 양 내세워 中國·滿蒙 및 日本에 부수되는 조선 문화의 특수성 즉 地政學的 關係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과거의 조선 문화를 내적 계기에서 발전적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그것이 지니는 일반성과 개별성을 해명하기보다는 일제의 통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조선 문화를 대륙 문화와 일본 문화에 부속된 문화로 치부함으로써 그것이 지니는 특수성을 半島性으로 간주함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1928년부터 1930년에 걸쳐 학무국 학무과 분실에서 경성제국대학 부속 도서관으로 이관된 규장각 자료는 일제의 이러한 학술문화정책과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의 연구 방향에 부응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물론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은 고문서와 함께 고서를 다량 수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어디까지나 일본인 관학자들의 연구 방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 중 법문학부가 진력하였던 奎章閣叢書의 간행과 『朝鮮王朝實錄』의 영인은 주로 동양문화 연구 또는 일본문화 연구와 관련되어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식민지 학술연구 활동의 대표적인 산물이라 하겠다. 나아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의 조선=동양 연구는 이러한 학술 문화 기반 위에서 관련 전공자의 연구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법문학부 교수 오다(小田省吾)의 확신에 찬 언명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후반에 규장각 자료는 신간 도서에 밀려 이른바 소사실에 방치되었다. 이는 조선 문화를 대륙 문화와 일본 문화에 부속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가운데 규장각 자료를 이등국민의 문화잔재로 치부했기 때문이다.

이후 1945년 8월 일제의 패망과 한민족의 해방은 1920·30년대 朝鮮事情調査硏究會의 활동과 朝鮮學運動에도 불구하고 좌절되었던 민족문화 수립을 다시 한번 시도할 수 있는 기회였다. 즉 이는 일제에게 훼손된 민족문화 연구의 방향을 민족적 요구와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하여 정립하는 동시에 이를 받쳐줄 규장각 자료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여 보존·정리·편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소 양군의 한반도 분할 점령과 민족문화 재건 노력의 부진은 이러한 기회를 무산시켰을 뿐더러 국학연구의 장기적인 침체를 초

래하였다. 따라서 이후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규장각 자료를 비롯한 각지의 여러 기록문화유산을 학술문화 연구의 근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러한 열악한 여건을 개선하는 일이었다.

투고일(2008. 10. 30), 심사시작일(2008. 11. 5), 심사종료일(2008. 12. 8)

참고문헌

- 愼鏞廈, 1980 「奎章閣 圖書의 變遷過程에 대한 一研究」, 『奎章閣』 5.
- 田鳳德, 1984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의 由來」, 『朝鮮總督府古圖書目錄』 解題, 亞細亞文化社.
- 金泰雄, 1993 「1910년대 前半 朝鮮總督府의 取調局·參事官室과 ‘舊慣制度調査事業」, 『奎章閣』 16.
- 徐榮姬, 1994 「통감부 시기 일제의 권력장악과 규장각 자료의 정리」, 『奎章閣』 17.
- 이태진, 1994, 『왕조의 유산 — 외규장각을 찾아서』, 지식산업사.
- 金泰雄, 1995 「日帝 强占 初期의 奎章閣 圖書 整理 事業」, 『奎章閣』 18.
-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1996 『서울大學校 圖書館五十年史 1946~1996』.
- 裴賢淑, 2002 『朝鮮實錄研究序說』, 태일사.
- 李相燦, 2002 「伊藤博文이 약탈해 간 고도서 조사」, 『韓國史論』 48.
- 鄭肯植, 2002 『韓國近代法史攷』, 博英社.
- 朴光賢, 2002, 「京城帝國大學と「朝鮮學」」, 名古屋大學大學院人間情報學研究科 博士學位論文.
- 정선이, 2002 『경성제국대학 연구』, 문음사.
- 박광현, 2005 「경성제국대학 안의 ‘동양사학’ — 학문제도·문화사적 측면에서 —」 『韓國思想과 文化』 31.
- 小田省吾, 1936 「朝鮮史籍解題講義(一)」, 『靑丘學叢』 23.
- 末松保和, 1941 『朝鮮歷代實錄一覽』, 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

田川孝三, 1941 「朝鮮研究史の現代的意義 — 櫻井義之編著『明治年間 朝鮮研究文獻誌』一」, 『朝鮮行政』 194.

_____, 1972 「京城帝大法文學部と朝鮮文化」, 『京城帝國大學同窓會會誌』.

Abstract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Kyujanggak Archives (奎章閣) and the Application of it's Possession Materials in Keijo Imperial University (京城帝國大學) under the Japanese Rule

Kim, Taewoong

Imperial Japan tried to carry out the cultural policy strongly in the colonial Joseon to control the national movement of Korean and assimilate the Koreans to the Japanese. Namely, it attempted to research the Joseon culture to correspond to the purpose of 'Cultural Rule' after 1919, while to press or exclude the Joseon culture before this time.

The department of law-literature in Keijo Imperial University (京城帝國大學) founded in 1926 showed this purpose of Imperial Japan. Therefore, the direction of Joseon study placed emphasis on the explaining of the mixed and dependent color of Joseon culture rather than of it's original and independent one.

Imperial Japan transferred the Kyujanggak archives of education and management office (학무과) to the 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 from 1928 to 1930 in order to arrange and applicate them. Also it printed some Kyujanggak archives (for example, Joseon Dynasty Sillok) to promote the research activity of Japanese official scholars and displayed them to reduce the complaints of many Koreans about the difficulty of perusal.

But these efforts of Imperial Japan didn't place emphasis on the clarifying the universality and individuality of Joseon culture but on the embossing it's dependency to justify their colonial rule. Therefore, Korean scholars had to correct the management system of Kyujanggak archives in order to build the national culture after 1945.

Keywords: Assimilation (同化), Kyujanggak (奎章閣), Keijo Imperial University (京城帝國大學), 'Cultural Rule' 文化政治, Movement for Korean Studies (Joseonhak-Undong, 朝鮮學運動)